

당신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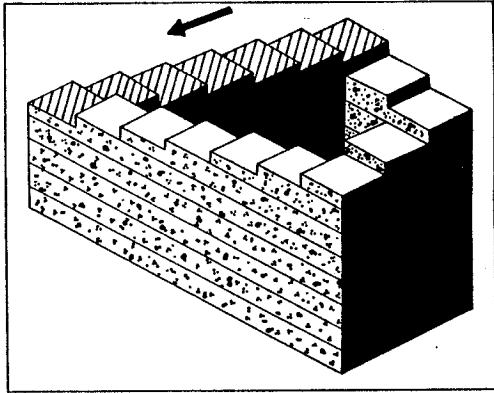


그림 속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 보면 계속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살표 방향의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려 가는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사상과 편견의 틀 속에 갇힌 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듯 착각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태 10:44)-

정류장

붙잡기에 능한 자

창 32:28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야곱은 잡기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침내는 그 기술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 붙잡은 하나님을 밤새워 동트기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엉덩이뼈를 얻어맞고 다리를 절지만 떠오르는 해는 어제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질 하나 있거든 그걸로 하나님을 뵈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내게 그 하나의 소질로 내 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 놓지 않는 자에게 태양을 떠오릅니다(창 32:310)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야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1권2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12월 26일
☎262-371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특정일(대답) FAQ

십일조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Q) 남편이 불신 가장이기에 십일조를 남편 모르게 드리다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편의 월급 중 순수한 생활비의 십일조만 드리고 있는데 월급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함에 죄책감이 저를 괴롭힙니다. 온전한 십일조의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성도의 신앙 생활이 어려움을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십일조에 대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관념은 피해야 합니다. 십일조의 한계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두 의견이 세계 교회에 있습니다.

첫째, 전체 수입의 십분의 일이다.

둘째, 세금을 공제하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수입의 십분의 일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 중에 전체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수입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최소한의 십일조를 드리며 살겠다는 그 신앙이 우선 귀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수준에 오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질문하신 성도의 '어느 선에서의 십일조냐'의 문제와 '불신 남편이 모르는 십일조'의 문제는 상당히 뒷단계의 고민입니다.

십일조의 범위를 너무 율법적인 것보다 자신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십일조 생활을 하시면 가정 경제가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정돈된 바른 경제 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절대로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드려도 가정에서 쓰고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헌금할 때는 두려움보다 즐거움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서의 자유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30

영광송
Gloria

"Calvary"
1절:예배반주, 1,3절:다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송
Hymn

25장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3 (계 21)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460 장

기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4:17-24

특송
Praising

주일학교
Sunday School

설교
Sermon

'내년엔 새롭게'

설교후 기도
Prayer

세례식(Baptism)
찬송

431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헌금기도
Offerory Prayer

*응답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위타의 말씀

*축도
Benediction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5	송정섭	최윤호	최윤호	여선교회
12		송정섭	송정섭	남선교회
19		서백화	서백화	청년부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지윤수 집사

아동부

김성국 목사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김성국 목사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양: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안내 : <주일> 1:30pm

<목요성경공부> 7:30pm

교회소식

1. 오늘은 20세기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2000년 신앙생활 목표와 표어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으로"

*실천사항

1)개인: 매일 성경 1/2장 읽기

2)가정: 가정예배 정착

3)교회: 화요새벽기도

4)선교: 결식아동지원 3배 증가 지원

3. 송구영신 새벽기도

한 해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와 결단을 위한 1주간(5일) 새벽기도회를 내일부터 갖습니다. 5일중 1일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회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목표

1)영적인 교회로 성장과 정착

2)교회성도 부흥

일자: 27일(월) - 31일(금)

시간: 6:00am

장소: 본당

4. 송구영신 예배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맞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자: 31일(금)

시간: 밤 11:30분

장소:본당

5. 직분 임명

오늘 임명예정이던 직분 임명을 1월 30일로 연기합니다.

6. 1월 예배위원

일자	헌금위원	tea time
2	한 건	남성교우
9	지윤수	여성교우
16	송정섭	청년
23	최윤호	남성교우
30	김효	여성교우

*1월의 예배기도는 목회자가 담당합니다.